

“우리 역사·자연 돌아본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동구청소년 글로벌리더 양성 ‘백두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라’ 성료 중학생 48명 4박5일간 고구려 유적지 등 탐방...28일 사후 교육

“우리의 역사와 자연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였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광주 동구의 제4기 동구청소년 글로벌리더 양성사업 ‘백두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라’가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4일 동구 등에 따르면 동부교육지원청, (재)보성장학재단, (사)대원장학회, (재)누리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참여해 꾸려진 ‘동구 청소년 세계인문지도자 양성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4회째를 맞은 올해 동구는 공동주관 기관과 함께 관내 6개 중학교 학생 48명에게 고구려 유적지와 백두산 일대 등의 탐방 기회를 제공했다.

학교별 인솔교사 6명, 동구청과 동부교육청 및 장학재단 관계자 등 68명으로 꾸려진 탐방단은 지난 8월28일 인천공항을 출발,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탐방에 나섰다.

중국 단둥에서 탐방단은 6·25전쟁 당시 북한으로 이동을 막기 위해 미군이 끊어버린 철교를 둘러본 후 압록강변으로 이동, 유람선을 타고 위화도와 신의주를 탐방했다.

또 고구려 유리왕 때 천도한 국내성이 있는 집안시에서 광개토태왕비를 봤으나, 사진으로 남기지 못하고 눈에 담아오만 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8월30일에는 이번 탐방의 하이라이트인 백두산 천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백산’이라고 적힌 환승장에서 탐방단은 셔틀버스를 두 번 더 갈아탄 뒤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

맑은 기운을 담아온 다음 날 탐방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오녀산성(졸본성)을 박물관 탐방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귀국 전까지 바다의 도시 대련의 성해광장과 안중근 의사가 투옥되고 사형을



광주 동구의 제4기 동구청소년 글로벌리더 양성사업 ‘백두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라’가 지난 28일부터 4박5일간 진행됐다. 사진은 동구 관내 6개 중학교 학생 48명 등으로 구성된 탐방단이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한 모습.

당한 여순간격을 살펴봤다.

4박5일 동안 탐방과 체험 중심의 인문교육을 가진 탐방단은 “우리의 역사와 자연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였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인문도시 광주 동구’의 청소년들이 백두산 일대 국제 인문탐방을 통해 웅대한 우리의 자연과 역사를 이해하고 미래를 능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

쁘다”며 “인문도시 광주 동구는 미래세대의 인문소양을 높이고 다양한 꿈을 키워주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소년 세계인문지도자 양성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탐방에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고구려 역사와 항일 역사 유적지 관련 사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재영기자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日 효고현립대 초청 강연



김일태(사진) 전남대 석좌교수가 일본 고베시 소재 효고현립대학 국제상경학부의 초청 강연을 위해 오는 10월2일 출국한다.

24일 전남대 등에 따르면 이번 초청 강연의 주제는 ‘Problems and Reviews on Risk and Uncertainty in Economics (경제학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에 관한 문제와 검토)’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경제주체의 의사 결정(선택 행위)을 위한 위험의 개념과 불확실성의 영향을 설명한다.

김 석좌교수는 이틀 뒤인 4일 재외한인학회(회장 임영인 교수) 주최로 오사카 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재일동포와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좌장으로 참여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만큼 재일동포와 한일 교류, 모국 공헌, 교과서 수록 및 교육 실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주제를 학술적으로 조망하고 글로벌 혁신을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김다이지

김자혜 전남대병원 교수 ‘최우수 포스터상’



전남대학교병원 연구원은 “핵의학 김자혜(사진) 교수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오세아니아 핵의학학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수는 ‘뇌 아밀로이드 PET에서 영상 획득 시간 단축을 통한 최적의 센티로이드 임계값(Optimal Centiloid Threshold by Shortening Image Acquisition Time in Brain Amyloid PET)’이라는 논문으로 최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뇌 아밀로이드 PET 영상 진단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PET 영상 획득 시간이 길어서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들에게 단축된 PET 촬영이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서구-LG유플러스-김유진아카데미 ‘소상공인 디지털 솔루션 지원’ 협약

광주 서구는 24일 (주)LG유플러스, (주)김유진아카데미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소상공인 매장 대상 인공지능(AI) 예약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전환 솔루션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김유진아카데미는 매장 운영 및 비즈니스 전략 교육을 담당하기로 했다.

임장혁 LG유플러스 기업고객그룹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디지털화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구청, 김유진아카데미와 협력해 지원하겠다”며 “더불어 소상공인의 상황

을 정확히 파악, 목소리를 업무에 반영해 소상공인 매장 디지털화를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대표는 “협약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구청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LG유플러스의 디지털 솔루션과 김유진아카데미의 장사 노하우 교육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홍보 및 교육, 디지털 전환 혜택 등을 통해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성환기자



담양군-대구 달성군 지체장애인 협상호 고향사랑기부

담양군은 “최근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와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가 각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담양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병노 담양군수, 여운복 담양군지체장애인협회장, 우승윤 달성군지체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목포해경, 민·관·군 합동 수난 대비 기본훈련

목포해양경찰서는 24일 “전날 목포 삼학도 임시여객터미널에서 해상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3분기 수난 대비 기본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목포해경, 서해지방해양특수구조대,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소방서,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해군 3함대, 씨월드 고속훼리, 한진GTC 등 9개 기관·민간단체가 참여했으며 경비함정 5척이 동원됐다.

훈련은 카페리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해 ▲회향 조치 등 초기 대응 ▲해상 익수자 구조 ▲전기차 화재 진압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또 전기차 화재 대응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의 교육도 병행됐다. /목포=정해선기자

여운복 담양군지체장애인협회장은 “뜻깊은 자리에 양 기관이 함께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달성군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노 군수는 “담양군과 달성군은 1984년 자매결연 이후 다방면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끈끈한 사이”라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서월석 목포해경 경비구조과장은 “선박 내 전기차량 화재는 공간적인 특성상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더욱 견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선내 전기차 화재사고 대응 역량 향상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완도서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합동결혼식

전남도는 24일 완도 청해진스포츠클럽에서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장애인 유관단체장 및 회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남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식,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어울림 한마당 잔치,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14명이 전남지사상을, 6명이 완도군수상을 받았다.

합동결혼식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제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7쌍의 장애인

부부가 백년가약을 맺고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2박3일의 신혼여행을 떠났다.

어울림 한마당에서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 가족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축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화합의 장으로 장애인 자기 존중과 장애인식 개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모두가 제각각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무안경찰, 전남기동순찰대와 소통간담회

무안경찰서는 24일 “전날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의 조성하고 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전남기동순찰대와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범죄 대응력 강화와 주민 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경찰조직이다. 특정 관할에 구애받지 않고 범죄 취약지 또는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곳을 대상으로 예방순찰을 실시한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이 남악 오통기주로 이동해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순찰에 참여했다.

남악 오통기주는 최근 학원가 및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전거 절도가 발생, 무안경찰서는 기동순찰대를 배치하는 등 범죄 예방 관



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강용준 무안경찰서장은 “기동순찰대가 지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지키는 데 그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인사

호남대 ▲기획처장 겸 AI교양대학장 겸 대학혁신본부장 송창수 ▲학술정보원장 겸 정보통신공학과장 강은주 ▲홍보실장 겸 통합뉴스센터장 겸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장 한선

본사손님

▲모성묘 전남지방경찰청장

부음

▲정옥순씨 별세, 민중원(광주 북구의회 전문위원)씨 모친상=발인 25일(수) 오전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층 장공실(062-250-4455).